

2014년 9월 29일 새벽정리요약말씀

네, 다시 새벽 말씀의 단상 앞에 여러분들과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하루 종일을 크게 나누면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이 시작되는 원인은 새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침이 있으므로 점심이 있고, 점심이 있으므로 저녁이 있습니다.

새벽의 역사, 새벽의 생각, 새벽의 하는 일! 모두 각각 온 종일 하는 일이 다르지만, 선생은 새벽에 가장 많이 일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벽에 깨닫고 받은 모든 것을 낮에 일하기 때문입니다.

금주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표적을 일으켜라.”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죽 해 왔습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본을 알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금주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시대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적을 일으키려면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먼저 배우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사람들이 사랑이 좋고, 이성적인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 모두 좋은데 배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효력이 별로 없고, 그렇게 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나 보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산맥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맥도 여기 배경 사진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지요? 죽죽 흘러갔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 올라갔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물은 흘러 내려갑니다. 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고, 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구나.’

해가 질 때, 그 때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동안 진초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진초 했습니다. 내가 그 때 시도 썼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구나.”

어떻게요? 점진적으로, 종의 시대에서 아들의 시대로, 신부 시대로 흘러갔잖아요.

종의 시대도 그 당시에 차원성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신약 시대도 차원성을 두고 계속 흘러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성약 역사를 올라가려니까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산과 물은 흘러 내려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은 물렁물렁하니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게, 무슨 힘을 갖고서 흘러 올라가느냐?

어떤 힘을 갖고서 올라가느냐?

어떤 힘을 갖고 올라가지요? 지금 하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힘으로 역사가 자꾸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무슨 힘입니까?

중심권 역사! 무엇을 가지고 힘을 내서 역사가 막 올라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불교인들은 깨닫습니다. 나도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힘을 받게 하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제일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을 받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리>를 깨우쳐 주었을 때, 그 진리의 힘! 그래서 사랑의 힘, 진리의 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진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힘 있고, 내가 이들을 사랑해줄 때 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올라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진리의 힘을 갖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되게 오는 힘들이다. 모든 존재하는 데 있어서 존재물이 힘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사랑의 힘! 사랑으로 그렇게 올라온다!!

<중심 역사>는 항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며, 그에게 가장 큰 말씀을 시대의 중심적인 말씀을 줘서 끌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권의 역사는 사랑!!

그와 같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표상한 사람, 지구상에서 최고 사랑하든지, 최고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사는 그 인생에게 역사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바로 가서 그를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막아도 가기는 가는구나.’

<사랑> 때문에 가깝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 하러 가깝게 삽니까?

“사랑 때문에 가깝게 산다. 사랑은 가장 힘을 폭발시킨다. 진리는 가장 능력과 힘을 폭발시킨다. 사랑과 진리는 그 시대 역사의 강줄기 돼서 중심역사가 흘러갔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늘 수고하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하면 나는 무엇 하는지 압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는 일만 전문하면 됩니다.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면 되니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요.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시작의 원인이 되었고, 또 사랑 때문에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약하고, 사랑이 식든지, 사랑이 깨어지면 또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헤어지면 하늘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적은 신부들이 일으켜야 된다!

신부들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본체입니다. 왜? 왜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도 사랑을 밧테리 충전하듯이 충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사랑의 본체들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유형세계의 사랑의 본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뒀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사랑의 표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표적을 일으켜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표적을 계속 일으켜 왔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일으켜야 될 때다.” 그 선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해야 될 때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때다.”

죽은 역사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살아나고, 사랑하고 진리 주면 살아납니다.

죽은 역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말씀을 주면 살아납니다.

사랑해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할 만큼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 시작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체이기 때문에 여자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큰사랑을 얻을 수 있고, 큰사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호기심이 상실되면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기심을 잃고, 인간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호기심, 사랑의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호기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호기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지겨워서 그 긴긴 역사를 어떻게 살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남은 여생을 살래? 무엇으로 그 공허를 채울래?”

사랑의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대. 앞으로 이렇게 한 대.” 이런 호기심!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갖고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나타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다가 또 시간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그렇게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빈 평안이 이들에게 충만하고,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